

버스 도우미·1000원 택시 확 달라진 해남군 대중교통

승강장 교체·화장실 리모델링

1000원 버스·안심귀가 택시 호응 교통편의 향상·교통복지 실현

해남군이 확 달라진 대중교통 정책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32개소의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500여개의 승강장 정비에 완료했다.

승강장 정비는 지붕 보수 등으로 누수가 되고, 대기좌석이나 조명시설이 미비한 버스 승강장을 대상으로 최신 시설로 교체하거나 보수를 실시했다.

군은 내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승강장 이용이 불편한 노후 승강장 35개소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해 군민과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개방했다.

해남종합버스터미널은 1988년 지어져 몇 번의 시설 개선이 있었지만 화장실 시설이 낡고, 편의 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기존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화장실 후문을 야간에도 개방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를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들이 승하차 보조와 짐 들어주기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대비한 교통복지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와 해남사랑택시(1000원 택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10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명을 채용해 승하차 보조와 짐 들어주기 및 행선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해남군이 관내 농어촌버스의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1000원 버스'는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 요금으로 관내 어디나 갈 수 있도록 해 원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는 야간학습으로 인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기존 학교 야간학습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던 대상 범위를 넓혀 방과후 학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명원관 해남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농어촌 현실에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다양한 교통분야 정책 발굴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새콤달콤 영양 풍부...영암딸기 수확 한창

kg당 1만5000원~1만8000원 거래

천혜의 환경에서 정성껏 가꾼 새콤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한 영암산 딸기의 수확이 한창이다.〈사진〉 과거 딸기는 봄에 생산됐지만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수확량이 많은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으로 제철 과일로 각광 받고 있다.

영암딸기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등 작물재배 최적의 환경에서 8농가 4.9ha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영암딸기는 친환경재 사용 및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통해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재배농가들은 작업이 편리하고, 고품질 관리 재배농법인 고설재배(수경재배)를 통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판매장과 공판장 등에서 1kg당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딸기는 레몬의 2배, 사과 10배가 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딸기 속에 함유된 비타민 C는 감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특히 딸기의 상징인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좋다.

또 자일리톨 성분이 있어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서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농가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해 딸기 묘목을 지원하고, 딸기 생산시설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1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산 딸기 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강화와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수산물고 학부모들이 기숙사에 격리중인 학생들을 위해 가져온 간식을 배부하고 있다.

완도수산물고 유기적 방역, 코로나 확산 막았다

신속한 조치로 1명 외 확진 차단

완도수산물고등학교 교사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학교측과 학부모,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방역 조치가 화제를 낳고 있다.

13일 완도수산물고와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완도수산물고 교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지역사회가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속에 전국적으로 매일 70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밀집된 공간인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완도군과 해당 보건소는 신속하게 완도수산물고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밀접접촉한 교사와 학생은 물론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이튿날인 지난 10일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기숙사생 110명 전원을 기숙사에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숙사 격리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완도수산물고 김성 교장은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학부모운영위원회도 수시로 학교를 찾아 생필품과 간식을 직접 기숙사에 격리중인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정배 완도수산물고 학부모운영위원장은 "균형과 학교, 학부모들이 만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 유기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나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격리중인 학생과 교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방역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레드카펫 펼쳐진 신안갯벌...칠면초·해홍나물 장관

붉게 물들은 염생식물 갯벌 덮어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이 자주빛과 붉은빛으로 옷을 갈아입어 레드카펫을 펼쳐놓은 듯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신안갯벌은 가을을 지난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염생식물로 붉게 물들어 있다. 염생식물은 여름에는 광합성작용으로 푸른색을 띠다 가을을 지나면서 엽록체가 사라져 본연의 색깔인 붉은색을 드러낸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은 넓은 갯벌과 뛰어난 자연성을 기반으로 많은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대표적인 염생식물로는 칠면초와 해홍나물, 함초로 잘 알려진 통통마디가 있다.

염생식물은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돼 온 자연의 선물로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된다.



칠면초와 해홍나물로 붉게 물든 신안갯벌.

〈신안군 제공〉

특히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갯벌에 저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염생식물 군락지는 갯벌과 해양 생물들의 산란처로서 해양수산자원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신안갯벌은 펼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 염습지, 해안사구, 조수해빈 등 종 다양성과 생태계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